

## 고대 중국어 품사 활용론 고찰\*

김 혜 영\*\*

〈目次〉

I. 서론	2. 《국문법초창(國文法草創)》
II. 품사 활용론의 정립 과정	III. 품사 활용론의 문제점
1. 《마씨문통(馬氏文通)》	IV. 결론

### I. 서론

품사활용은 한 단어가 임의적으로 본래의 품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기능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고대 중국어<sup>1)</sup> 문법의 특수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중국어는 고립어로 품사 변화가 외형적 형태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특히 고대 중국어는 단음절 위주로, 하나의 한자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문장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중국어 문장을 읽을 때, 한 문장 안에서 해당 한자가 어떠한 품사, 문장성분으로서 기능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문장형식으로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대중국어 해석 시에 주의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품사 활용은 고대 중국어 학습, 교육에 있어서 문장을 올바르게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7068438)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1) 고대에 사용한 중국어로, 문헌에 기록된 표준 공동 문어를 가리키며 고전 중국어, 한문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다.

독해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문법 특징으로 간주되어 왔다. 고대중국어 문법서는 품사활용 현상을 고대 중국어 문법의 특수성으로 소개하며 품사활용의 항목, 예문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간혹 품사의 일반 용법보다 특수용법에 해당하는 활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sup>2)</sup>

이처럼 품사 활용론은 고대중국어, 한문 문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금까지 고대 중국어 문법 연구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오랜 기간 학계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대 중국어 품사 활용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품사 활용론의 정립 과정을 고찰하고, 그 안에서 말미암은 다양한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품사 활용론을 정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품사 활용론의 정립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고대 중국어 문법 연구의 시작점인 《마씨문통(馬氏文通)》(1898)의 품사활용 현상 분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진승택(陳承澤)의 《국문법초창(國文法草創)》(1922)에서 ‘활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품사 활용론에 대한 기존 논의는 이를 기점으로 삼았지만, 고대 중국어 품사 분류를 최초로 시도한 《마씨문통》에서도 고대 중국어의 품사 활용 현상을 분석하였으며 《국문법초창》 역시 이를 발판으로 품사 활용론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마씨문통》에서부터 품사 활용론의 정립 과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국문법초창》에서 ‘활용’ 개념을 제시한 이후, 여러 고대 중국어 문법서는 품사 활용 현상을 분석하며 그 이론 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예를 들면, 왕력(王力)의 《고대한어(古代漢語)》(1962), 양백준(楊伯峻)의 《문언문법(文言文法)》(1963), 곽석량(郭錫良) 외, 《고대한어(古代漢語)》(1964), (학이사(學而思) 역, 《한문학습의 길잡이 고대중국어》(2016)), 요진우(廖振佑)의 《고대한어특수어법(古代漢語特殊語法)》(1979),

2) 요진우(廖振佑)의 《고대한어특수어법(古代漢語特殊語法)》은 한문 문법, 즉 고대 중국어 문법과 현대 중국어 문법의 다른 부분을 고대 중국어 특수 문법이라 정의하고, 고대 중국어의 품사활용, 생략, 도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2012)), 리취핑(李佐豊), 《고대한어어법학(古代汉语语法学)》(2004), (신원철, 김혜영, 이강재 역, 《고대중국어 어법론》(2018)) 등의 고대 중국어 문법서에서 고대 중국어의 품사 활용 현상을 연구하였다. 국내 연구서는 허벽의 《중국고대어법》(1997), 안병국의 《고대한어 어법의 기초》(1999), 최태길의 《고대한어총론》(2001), 최태길, 정옥순 《고대중국어》(2005) 등이 있다.<sup>3)</sup>

품사활용에 대한 국외 연구는 张文国(2005), 《고대 중국어 명사, 동사의 품사 활용과 발전(古汉语的名动词类转变及其发展)》, Zádrapa(2011) 《고전 중국어 품사 활용: 명사의 동사, 부사로의 활용(Word-class Flexibility in Classical Chinese: Verbal and Adverbial Uses of Nouns)》이 있다. 모두 명사의 품사 활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후자는 인지문법학의 관점에서 영어, 체코어의 품사 활용의 용례를 비교분석하였다. Linlin Sun(2020) 《고대중국어 품사 활용(Flexibility in the Parts of Speech System of Classical Chinese)》은 통사, 의미, 수사적 관점에서 품사 활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밖에도 김성중, <한문교과 학습 요소로서의 ‘품사의 활용’에 대한 연구>(2022), <한국 한문문법서의 성과와 향후 과제>(2018)는 한문문법 연구와 교육의 관점에서 품사 활용론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안기섭(2012)의 《신체계 한문법대요-선진 양한 시기》와 같이 고대 중국어의 품사 활용을 비롯하여 그 품사 분류 체계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즉, 고대 중국어의 품사 활용 현상은 보편적이므로 특수 용법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고대 중국어에 서양에서 유래한 품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3) 본 논문은 국내에서 출간된 고대 중국어 문법 연구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품사 활용론은 이 외에도 한문 문법 연구서, 한어사 연구서에서도 논의되었다. 김성중(2018)은 국내 한문 문법서의 품사 활용론에 대한 연구 성과,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관련한 내용은 이를 참조할 수 있다. 김성중, <한국 한문문법서의 성과와 향후 과제>, 《동방한문학》, 74권0호, 2018 참조.

따라서 고대중국어의 품사 활용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고대중국어의 품사분류와 문법 체계 성립을 뒤받쳐 주는 근거이다. 따라서 고대 중국어 문법에서 품사 활용론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품사 활용론의 정립 과정을 고찰하고, 각 문법서의 품사 활용론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품사 활용론에 대한 이견 및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2장은 《마씨문통》의 품사활용 분석 양상을 밝히고, 그 이후 《국문법초창》의 비판적 계승을 통한 품사 활용론 정립 과정을 밝힌다. 다음 3장은 고대 중국어 문법서의 품사 활용론을 비교분석하여 품사 활용론의 문제점을 밝힌다. 이는 품사 활용론을 정비하고 궁극적으로 고대 중국어의 품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향후 연구과제 및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품사 활용론의 정립 과정

### 1. 《마씨문통(馬氏文通)》

《마씨문통》은 마건충(馬建忠)의 저서로, 중국인이 저술한 최초의 문법서로 고대 중국어 연구에 품사론, 통사론을 도입하였으며, 명사(名字), 대사(代字), 형용사(靜字), 동사(動字), 부사(狀字), 개사(介字), 접속사(連字), 조사(助字), 감탄사(嘆字), 9가지 품사로 고대 중국어의 품사 체계를 정립하였다. 《마씨문통》은 “글자를 아홉 종류로 나누어, 모든 글자를 분류하기에 충분하다. 속할 부류가 없는 자가 없고 이 종류 외에 속하지 않는 자가 없다.(字分九類, 足類一切之字. 無字無可歸之類, 亦類外無不歸之字矣.)”<sup>4)</sup>고 설명하며 아홉 가지의 품사로 고대 중국어의 모든 글자를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마씨문통·권1》

하지만, 《마씨문통》 역시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의미, 품사로 기능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글자는 각각 뜻이 있는데 한 글자가 갖는 뜻은 한 가지에 그치지 않으니, 옛사람들이 글자 본의를 잊고 뜻을 만들어 낸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뜻이 같지 않으면 그 품사도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사는 그 뜻을 분류하는 것일 뿐이다. 글자 가운데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을 가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것도 있다. 후대 유학자는 글자의 뜻이 하나가 아니면 네 가지 성조로 구별하려 했지만, 예부터 이러한 것은 없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글자는 한 가지 품사에 귀속할 수 없다. 반드시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字各有義, 而一字有不正一義者, 古人所謂望文生義者此也. 義不同而其類亦別焉, 故字類者, 亦類其義焉耳. 字有一字一義者, 亦有一字數義者, 後儒以字義不一而別以四聲, 古無是也. 凡字之有數義者, 未能拘於一類, 必須相其句中所處之位, 乃可類焉.)<sup>5)</sup>

모든 글자를 아홉 가지 품사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일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글자는 하나의 품사에 귀속될 수 없고, 이는 여러 가지 품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글자는 문장에서의 위치, 즉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에 의거하여 품사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동일한 글자가 한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 품사, 그리고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예를 제시하였다.<sup>6)</sup>

- (1) 求之<sup>①</sup>與, 抑<sup>②</sup>與之<sup>③</sup>與. 《논어(論語)·학이(學而)》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 주는 것인가?
- (2) 夫子<sup>①</sup>之求<sup>②</sup>之也. 《논어·학이》 선생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 (3) 訟獄者不<sup>①</sup>之堯<sup>②</sup>之子而<sup>③</sup>之舜. 《맹자(孟子)·만장상(萬章上)》 옥사를 송사하는 자는 요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 갔다.

5) 《마씨문통·권1》

6) 《마씨문통·권1》

- (4) 陛下不能①將兵而善②將③將. 《사기(史記)·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  
 꺾이는 병사를 거느리는 것은 잘 못하지만, 장수를 잘 거느린다.
- (5) 勇士入其大①門則無人②門焉者, 入其①閨則無人②閨焉者. 《공양전(公羊傳)·선공(宣公)6년》 용사가 그 큰 문으로 들어가니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그 방 안에 들어가 보니 방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 (6) 人莫鑑於流水而鑑於①止水. 惟②止能③止衆④止. 《장자(莊子)·덕충부(德充符)》 사람은 흐르는 물에 비춰보지 못하고 멈춘 물에 비추어 본다. 오직 그침만이 여러 그침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7) 夫置①衛②衛君, 非以寵君也. 《사기·소상국세가(蕭相國世家)》 호위병을 배치하여 당신을 호위하는 것은 당신을 총애해서가 아니다.

예문(1)~(7)은 ‘與’, ‘之’, ‘將’, ‘門’, ‘止’, ‘衛’가 동일한 문장에서 각각 상이한 의미, 품사, 문장성분으로 기능하는 예이다. 예문(1)에서 ②‘與’는 동사이고, ①, ③은 모두 허사로, 조사이다. 예문(2), (3)은 ‘之’의 품사 활용으로 예문(2)의 ①, 그리고 예문(3)의 ②는 허사로 조사이며, 예문(2)의 ②는 대사, 예문(3)의 ①, ③은 동사로 사용되었다. 예문(4)에서 ‘將’은 ①, ②는 ‘등용하다’ 뜻의 동사이고 ③은 명사로 ‘장수’이다. 예문(5)에서 ‘門’은 ①은 명사로 ‘문’을 뜻하지만, ②‘門’은 ‘지키다’ 뜻의 동사로 사용되었다. 예문(6)에서 ‘止’는 네 차례 출현하며 ‘止水’의 ①은 물이 흐르지 않는 모습으로 형용사, ‘惟止’, ‘衆止’의 ②, ④는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뜻하는 명사, ‘能止’의 ③은 ‘그치게 하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어 ‘止’는 세 가지 부류를 겸한다. 예문(7)에서도 ①‘衛’는 ‘병사’의 뜻으로 명사, ②‘衛’는 ‘지키다’의 뜻으로 동사로 사용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위에서 예문 (1)~(3)은 동일한 글자가 실사인 동사, 대사나 조사인 허사로 사용되는 예이고, 예문 (4)~(6) 동사, 명사, 형용사로 실사에 속하는 품사 중에서 여러 가지 품사로 사용되는 예이다. 《마씨문통》은 실사 간의 품사 활용과 실사가 조사와 같은 허사로 활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부류의 품사 활용으로 간주하였다.

《마씨문통》은 이와 같이 한 글자가 다양한 품사로 기능하는 글자는

매우 많아서 모두 예로 들 수 없으며 배우는 이가 스스로 익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글자는 일정하게 정해진 뜻이 없고 일정하게 정해진 품사도 없다. 그 품사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앞뒤 문장의 뜻을 알아야 한다.(字無定義, 故無定類, 而欲其類, 當先知上下之文義何如耳.)”고 덧붙였다. 위의 설명에서 ‘자무정류(字無定類)’는 이후 《마씨문통》 연구에서 쟁점이 되었던 소재이다. 《마씨문통》은 궁극적으로 고대중국어에 품사론, 통사론을 적용하여 문법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고, 아홉 가지 품사의 개념을 제시하며 ‘글자는 정해진 품사가 있다(字有定類)’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어서 한 글자가 여러 가지 의미, 품사로 활용되는 예를 제시하면서 ‘글자는 정해진 뜻이 없고, 품사를 확정할 수 없다(字無定類)’고 주장한 것은 모순이다.<sup>7)</sup>

다만,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마씨문통》의 서문과 본론에 앞서 문법서에서 사용한 문법 개념, 용어를 설명한 1권의 계설(界說)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품사 체계 제시하고자 하는 저자의 목적의식과 고대 중국어 품사 활용의 특징에서 말미암은 품사 체계 적용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품사 활용 양상에 대한 마진충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전에 해당하는 《마씨문통》의 각 품사 분석에서 활용 양상을 어떻게 분석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마씨문통》은 품사 활용 현상을 가차(假借)로 설명하였다. 한 글자가 기타 품사로 활용되는 경우에 종종 ‘假借’, ‘假…爲(빌리다, ~으로 빌리다)’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명사, 동사 부사 장에서 각각 <통명가차(通名假借)>, <동사가차(動字假借)>, <부사가차(狀字假借)>를 구성하여 명사가 형용사, 동사, 부사로, 동사가 명사, 대사, 형용사, 부사로, 명사, 형용

7) 필자는 마진충이 여러 가지 의미로 기능하며 품사활용이 가능한 글자는 정해진 품사가 없다는 뜻에서 이와 같이 서술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씨문통》의 ‘자유정류(字有定類)’, ‘자무정류(字無定類)’설에 관한 논의는 劉乃仲, 《〈馬氏文通〉의 “字無定類”》, 《漢語學習》, 1985年06期. 邵靄吉, 《〈馬氏文通〉果真主張“字有定類”嗎?—評漢語語法學史上延續60多年的一種觀點》, 《鹽城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8年 06期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사, 동사가 부사로 기능하는 예를 분석하였다.

둘째, ‘用如’, ‘用若’, ‘用(…)爲’(~로 사용한다, ~와 같이 사용한다) 역사가차 개념과 유사하게 특정 글자가 기타 품사로 사용된 경우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 以小易大, 彼惡知之. 《맹자·양혜왕상(梁惠王上)》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바꾸니, 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 (9) 自其異者視之, 肝膽楚越也, 自其同者視之, 萬物皆一也. 《장자·덕충부》 다른 것으로부터 보자면 간과 쓸개도 초, 월과 같다. 그 같은 것으로부터 보자면 만물이 모두 하나이다.
- (10) 虎者戾蟲, 人者甘餌也. 《전국책·진책》 호랑이는 사나운 맹수로 사람은 좋은 먹이다.<sup>8)</sup>

예문(8), (9)는 모두 ‘명사로 사용되었다(用如名字)’고 분석한 경우이다. 예문(8)에서 형용사 ‘小’, ‘大’가 명사로 사용되어, 하나의 한자가 본래의 품사가 아닌 특정 품사로 기능하는 예로, 《마씨문통》의 가차 개념과 유사하다. 예문(9)는 개사 ‘自’의 목적어로 기능하는 두 개의 구(讀), ‘其異者’, ‘其同者’가 명사로 사용된 예로, 문장 단위가 명사로 기능함을 밝힌 것이다.<sup>9)</sup> 이와 같이 ‘用如’, ‘用若’, ‘用(…)爲’의 하나의 글자 이외에도 문장단위의 문장성분으로서의 기능과 해당 문장성분으로 기능하는 주요 품사를 밝힌 경우에도 종종 사용하였다. 예문(10)에서 ‘蟲’, ‘餌’ 모두 명사이지만 ‘형용사로 사용되었다(用如靜字)’라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두 명사 성분이 서술어로 기능하며 동사가 아닌 서술어 성분은 표사(表詞)<sup>10)</sup>이고, 표

8) 《마씨문통·권3》

9) 《마씨문통·권1》

10) 《마씨문통》에서 표사(表詞)는 ‘사(詞)’를 명칭으로 하는 문장성분으로, 주어에 해당하는 기사(起詞)에 대응하며, 서술어 어사(語詞) 가운데 동작성이 없는 서술어를 가리킨다. 《마씨문통》은 품사 가운데 명사, 대사, 형용사, 문장 단위로는 자, 구, 절 등 다양한 요소를 표사로 분석하였으며 동작성이 없다는 점에서 형용사(靜字), 표사의 개념을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사는 대개 형용사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用如’, ‘用若’, ‘用(...)爲’의 용어를 사용한 예는 9가지 품사 가운데 형용사가 가장 많다. 이는 명사성분을 수식하는 관형어나 서술어로 기능하는 동사가 아닌 성분을 모두 형용사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한 것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 ‘王道’, ‘王政’, ‘臣德’, ‘臣心’에서 ‘王’, ‘臣’ 두 글자는 본래 보통명사이지만, 다른 명사에 전치하여 형용사로 사용한다고 분석하였다.<sup>11)</sup> 예문(10)과 같이 동사가 아닌 기타 품사 성분이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은 표사이고, 이 문장성분으로 기능하는 요소 역시 형용사로 분석하였다. ‘표사는 형용사가 아닌 명사, 대사를 사용하기도 하며 이때, 명사, 대사는 형용사로 사용한 것으로 주어가 어떠한지를 나타낸다.’, ‘문장, 절(句讀)의 주어는 명사, 대사, 구, 모두 가능하며 표사는 대개 형용사이다. 명사, 대사, 구, 절 등을 표사로 삼은 경우는 반드시 형용사로 사용한 것이다.’의 설명에서도 서술어로 기능하는 명사, 대사를 형용사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동사가 아닌 서술어는 표사이고, 문장성분 표사로 기능하는 것은 형용사라는 인식에서 기타 품사나 문장 단위가 표사로 기능하는 경우, 모두 형용사로 분석하였다.

《마씨문통》의 ‘用如’, ‘用若’, ‘用(...)爲’는 문법적 기능에 근거한 품사 분류로, 문장성분과 품사를 대응시키고, 문법적 기능에 근거하여 구, 절 등의 문장 단위나 다른 품사의 글자가 특정 품사와 같이 사용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 밖에도 본래의 의미, 품사로 사용하였다는 뜻에서 ‘本’, 그리고 두 가지의 뜻, 품사를 겸한다는 뜻에서 ‘兼’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焉’은 대사이며 부사이다. ... (또한) ‘焉’은 대사이며 조사로 사용될 때 대개 대사의 본의에 기탁한다. 이는 ‘爾’가 본래 부사인데, 조사로 기능할 때 부사의 의미를 잃지 않는 것과 같다. ... ‘焉’은 대사, 조사를 겸한다. (此焉字之爲代字爲狀字也. ... 焉代字也, 及爲助字, 概寓代字本意. 是猶爾字

11) 《마씨문통·권3》

本狀字也, 及爲助字, 仍不失有狀字之義耳. … 焉兼代字助字.)<sup>12)</sup>

전의조사(傳疑助字) 중 이 두 글자(夫, 諳)는 전의조사 중 ‘焉’, ‘爾’ 두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본래의 의미를 지닌 상태에서 돕는다.(蓋傳疑助字之有此兩字, 是猶傳信助字之有焉爾兩字, 皆各抱其本解而爲助者也.)<sup>13)</sup>

본래의 의미, 품사라는 뜻에서 ‘本’자를 사용하였으며 품사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본래의 의미가 여전히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兼’으로 설명하였다. ‘焉’은 부사, 조사로 기능하지만 대사로 기능하는 것이 본래 의미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품사가 바뀌어 조사로 기능하면서도 대사의 의미를 내포하여 대사와 조사 두 가지 품사를 겸한다고 하였다. ‘爾’ 역시 본래 부사이지만 조사로도 기능하며 이때 부사로서의 의미도 내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실사에서 허사로 전환된 경우이다. 이는 조사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조사가 특정 품사에서 유래하여 이미 품사가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이전의 의미적 기능을 잃지 않고 조사로 기능한다는 주장이다.

그 밖에도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품사 설명에서 중복으로 특정 글자를 언급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或’을 대사 장에서는 약지대사(約指代字)로 설명하고 뒤에서 접속사 장에서는 승접접속사(承接連字)로 설명하였으며 부사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爲’ 역시 동사, 접속사로 설명하였다.

《마씨문통》은 한 글자가 여러 가지 품사로 기능하는 현상을 ‘가차(假借, 假爲)’, ‘~로 사용하다(用如, 用若, 用爲)’, ‘본래(本)’, ‘겸하다(兼)’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였다. 장절의 제목은 ‘가차(假爲)’로 하고 각 예문 분석에서 ‘용여(用如)’, ‘용약(用若)’의 용어를 사용한 점에 근거하면, 각각의 용어를 엄밀히 구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로 사용하다(用如, 用若, 用爲)’는 문장단위가 특정 문장성분으로서 기능하거나 특정 글자의 문법적 기능에 근거한 품사 전환의 분석에 주로 사용하여 어휘의

12) 《마씨문통·권8》

13) 《마씨문통·권8》

의미적 특징보다는 문법적 특징에 초점을 두었으며, ‘本’, ‘兼’의 경우, 허사에 속하는 품사로의 활용에서 본래 의미 기능을 겸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마씨문통》에서 제시한 품사 활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마씨문통》의 품사활용 목록

1	형용사	명사
	동사	
	부사	
2	명사	동사
	대사	
	형용사	
	부사	
3	명사	형용사
	대사	
	동사	
	부사	
4	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	
5	자동사	타동사
6	고유명사	보통명사
7	동사	개사
8	동사	접속사
9	부사	

형용사, 동사, 부사의 명사화, 명사, 대사, 형용사, 부사의 동사화, 명사, 대사, 동사, 부사의 형용사화, 명사, 형용사, 동사의 부사화를 설명하였고 그 외에도 자동사가 타동사로,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기능하는 예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동사가 개사로, 동사, 부사가 접속사로 기능하는 항목 역시

분석하였다. 《마씨문통》의 품사활용 항목은 한 글자가 실사 안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품사로 활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사, 접속사 등의 허사 성분으로 활용되는 예도 함께 분석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일부 품사는 본래 해당 품사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고, 다른 품사의 글자를 빌려서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자무정류’와도 관련이 있으며 부사를 제외하면<sup>14)</sup>, 실사에 속하는 품사가 허사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부사는 본래 정해져 있지 않고, 종종 다른 품사의 글자를 가차하여 부사로 삼는다. 이는 반드시 피수식어보다 앞에 위치한다. (狀字本無定也, 往往假借他類字爲狀字者, 然必置先於其所狀.)<sup>15)</sup>

네 가지 접속사 가운데 뜻이 없어서 응당 허사라 불리는 것은 적고 대부분 동사나 부사를 빌려서 쓴다. (四宗連字, 其不爲義而有當虛字之稱者蓋寡. 蓋皆假借動字狀字以爲用.)<sup>16)</sup>

개사의 용법과 타동사의 용법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므로 타동사가 개사처럼 쓰이는 예가 있고, 또 반대로 개사가 동사처럼 쓰이는 예도 있다. (總之, 介字用法與外動字大較相似, 故外動字有用如介字者, 反是, 而介字用如動字者, 亦有之.)<sup>17)</sup>

개사 중 ‘之’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뜻이 모두 동사로 사용될 수 있으며, ‘與’, ‘以’ 등이 그렇다. (介字除之字外, 其本義皆可用如動字, 與以等字是也.)<sup>18)</sup>

본래 부사로 그 품사가 부사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명사, 형용사, 동사를

14) 《마씨문통》은 부사를 실사로 분류하였지만, 이후 왕력은 부사를 반실사로 분류하였다. 양백준 역시 『고한어허사(古漢語虛詞)·전언(前言)』에서 대사, 부사가 실사, 허사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일부 대사, 부사는 허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부사의 반실반허(半實半虛), 허사와 실사를 겸하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접속사, 개사와 같은 허사와 공통점이 있다.

15) 《마씨문통·권6》

16) 《마씨문통·권8》

17) 《마씨문통·권7》

18) 《마씨문통·권7》

가차하고, 접속사 역시 본래 허사인 경우는 드물고 동사나 부사를 가차한다고 설명하였다. 부사, 접속사는 본래의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품사에서 기원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개사 역시 본래 뜻이 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 성분으로, 개사는 동사로, 동사는 개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씨문통》은 품사론을 도입하여 고대 중국어의 어휘를 아홉 가지 품사로 분류하고, 한 글자가 다양한 품사로 기능하는 고대 중국어의 문법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가차(假借, 假爲)’, ‘~로 사용하다(用如, 用若, 用爲)’, ‘본래(本)’, ‘겸하다(兼)’ 등 다양한 개념어를 사용하여 그 용례를 분석하였다. 실사 안에서의 품사 활용뿐만 아니라 실사에서 허사로의 품사 활용을 포함하는 등 현재의 품사 활용론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다층위의 품사 활용 양상을 다루었다. 품사와 문장 성분 간의 대응 관계를 설정하고, 특정 문장성분으로 기능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품사로 분석하여 해당 품사의 의미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성분 역시 해당 품사로의 활용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마씨문통》의 품사 활용 분석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에서 제시한 품사 활용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항목은 이후 문법서에 영향을 미쳤다.

## 2. 《국문법초창(國文法草創)》

고대 중국어 문법의 ‘품사 활용론’ 체계를 정립한 것은 진승택의 《국문법초창》(1922)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씨문통》 역시 품사 활용 현상을 분석하였지만, ‘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품사 활용론의 이론 체계를 정립한 것은 《국문법초창》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문법서, 《마씨문통》, 《고등문법》(1920)은 각 품사를 설명하면서 일종의 특수용법으로 품사활용의 용례를 제시한 것<sup>19)</sup>과 달리 《국문법

19) 양수달의 《고등문법》은 명사의 활용을 통가(通假)로 설명하였으며, ‘轉爲(전

초창》은 최초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품사 활용 현상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품사 활용론이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국문법 초창》은 품사 활용을 두 차례 설명하였다. 3장에서 중국어 문법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중국어 품사 체계, 품사 구분의 기준, 품사의 본용과 활용, 의미 인신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4장에서 12장까지 9가지 품사를 소개하고, 13장에서 다시 품사 활용의 예를 제시하며 〈활용의 범위〉, 〈본용의 활용〉, 〈비본용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문법초창》은 《마씨문통》의 품사 활용 분석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첫째, 품사활용의 범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마씨문통》은 실사와 실사, 그리고 실사와 허사 사이의 품사 활용을 구분 없이 모두 다루었지만, 한 글자가 허사, 실사로 서로 호환하는 경우는 그 수가 많아 보편 원칙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간주하고 품사 활용론에서 이를 제외시켰다. 그리고 품사활용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국문법초창》의 품사활용 목록

1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자동사, 관계동사, 타동사)
2	형용사	명사
		부사
		동사(자동사, 사역동사, 의동사, 관계자동사)
3	자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관계자동사, 사역동사)
4	타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자동사, 사역동사)

위), ‘轉來(전래)’의 용어를 사용하여 동사, 부사로의 품사 전환을 설명하였다.

명사가 형용사, 부사, 자동사, 관계동사, 타동사로 활용되는 경우, 형용사가 명사, 부사, 자동사, 사역동사(致動字), 의동사, 관계자동사로 활용되는 경우, 자동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관계자동사, 사역동사로 활용되는 경우, 타동사가 명사, 형용사, 자동사, 사역동사로 활용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부사로의 활용은 설명하였지만, 부사가 기타 품사로 활용되는 예는 생략하였다.

둘째, 《국문법초창》은 단어의 본용, 활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품사활용과 단어의 의미변화에 의한 검류의 구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활용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예로, 《국문법초창》은 《마씨문통》에서 제시한 예문(6)을 재인용하여 ‘止’의 본용은 자동사로 그 외에 기타 품사로 사용된 예는 활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마씨문통》은 ‘겸하다(兼)’고 설명하였지만, 한 글자가 여러 가지의 품사를 겸하는 ‘검류’가 아니라 임시적 활용임을 지적하며 검류와 활용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씨문통》은 ‘가차(假借, 假爲)’, ‘용여(用如), 용약(用若)’, ‘본래(本)’, ‘겸하다(兼)’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마씨문통》에서 해당 예문을 활용이 아닌 검류로 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도 형용사가 자동사,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활용이 아닌, 검류로 분석하였으며, 상태 자동사가 상태 동사, 동작 동사 두 가지 성질을 가지는 경우 주종을 분간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를 기타 활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역시 활용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고 밝혔다.<sup>20)</sup>

그리고 《국문법초창》은 활용을 본용활용(本用活用), 비본용활용(非本用活用),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본용활용은 문장론, 즉 통사 구조상의 품사 변화로 글자의 품사 성질은 변동이 없는 경우이고, 비본용의 활용은 문장론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글자 품사의 성질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본용활용이 보편적인 것에 반해, 비본용활용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밝혔다.<sup>21)</sup> 이는 《마씨문통》의 두 가지 용어, ‘가차(假借, 假爲)’, ‘~로 사용하

20) 陳承澤, 《國文法草創》, 北京: 商務印書館, 1922, 1982, 65-76쪽.

다(用如, 用若, 用爲)’과 유사하며 특히 후자는 통사 구조상 문장성분으로서의 문법적 기능에 근거한 품사 활용으로 《국문법초창》의 ‘본용활용’에 가깝다. 《마씨문통》에서 ‘~로 사용하다(用如, 用若, 用爲)’로 설명한 예는 문장 성분의 기능에 의거한 경우를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를 가차 개념과 혼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국문법초창》은 본용, 활용의 개념과 본용활용과 비본용활용을 통하여 그 문법적 기능에 의거한 품사 활용의 경우를 구분하였다.

《마씨문통》은 최초로 고대 중국어 품사론 적용을 시도하면서 다양한 품사로 기능하는 품사 활용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문법초창》은 그 품사체계 및 품사 활용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품사 활용론의 기반을 다졌다. 이후 출간된 고대 중국어 문법서도 품사 활용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이어나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품사 활용론의 체계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다. 다음은 현재 품사 활용론의 양상 및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 Ⅲ. 품사 활용론의 문제점

《마씨문통》 이후 고대 중국어 문법 연구에서 품사 활용론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이론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품사 활용론의 범위 설정이나 세부 항목, 검류, 통용 등 기타 개념과의 경계 설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이는 학습자의 혼란을 야기한다. 본 장에서는 각 문법서의 품사 활용론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각 문법서의 이견 및 현 품사 활용론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각 문법서에서 제시하는 품사 활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sup>22)</sup>

21) 陳承澤, 《國文法草創》, 北京: 商務印書館, 1922, 1982, 66-76쪽.

22) 본 장은 국내에서 출간된 고대 중국어 문법 저역서를 대상으로, 품사 활용론

〈표 3〉 8종 고대 중국어 문법서의 품사활용 목록

저자 (문법서 출판년도)	품사활용 항목
왕력(1962)	명사가 동사로 사용. 동사, 형용사, 명사의 사동용법. 형용사, 명사의 의동용법. 명사가 부사어로 사용. 동사가 부사어로 사용.
양백준(1963)	명사가 동사, 부사어로 사용. 형용사와 동사가 명사로 사용.
요진우(1979)	명사가 일반, 사역, 의동 동사, 부사어로 사용.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사역동사), 부사어, 명사로 사용. 형용사가 일반, 사역, 의동 동사, 명사로 사용.
곽석량 외(1964)	동사, 형용사, 명사의 사동용법. 형용사, 명사의 의동 용법. 명사가 동사, 부사어로 사용.
허벽(1997)	명사의 일반, 사역, 의동 동사 용법. 형용사의 명사, 동사(일반, 사역, 의동), 부사 용법. 동사의 명사, 판단사, 능원동사, 사역동사(자동사, 타동사) 용법.
안병국(1999)	동사, 형용사, 명사, 수사의 사동용법. 형용사, 명사의 의동 용법.
최태길(2001)	동사, 형용사, 명사의 사동용법. 형용사, 명사의 의동용법. 명사가 일반 동사로 사용. 형용사가 명사, 일반 동사로 사용. 동사가 명사로 사용. 수사가 동사로 사용. 명사가 상황어로 사용.
최태길·정옥순 (2005)	명사가 일반 동사로 사용. 형용사가 명사, 일반 동사로 사용. 동사가 명사로 사용. 수사가 동사로 사용. 명사가 상황어로 사용.

을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각 문법서의 품사 활용 항목에 근거하면 품사 활용론의 범위가 상이하다. 《마씨문통》은 한 글자가 실사에 속하는 품사나 허사에 속하는 접속사, 개사, 조사, 탄사로 활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일찍이 《국문법초창》은 실사에 속하는 품사 간의 활용을 품사활용으로 보고, 한 글자가 실사이지만 허사로 활용되는 경우는 품사의 활용이 아니라고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대개 실사가 허사로 기능하는 경우는 허사로서의 의미가 임의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한 글자가 여러 가지 의미, 품사로 기능하는 검류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였다.

하지만 아홉 가지의 품사를 나열하고 단순히 품사활용이라 하면 아홉 가지 품사 간의 활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십상이다. 김성중(202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문과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敎’가 명사, 동사로 기능하는 경우와 ‘之’가 동사, 조사로 기능하는 예를 모두 품사활용으로 간주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국문법초창》에서 품사 활용의 범위를 실사 부류 안에서의 활용으로 정한 이래로 대부분의 문법서가 이를 계승하였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일부 문법서는 부사를 허사로 간주하였지만, 명사, 형용사가 부사로 기능하는 경우를 품사활용으로 간주하였다. 요진우(1979), 허벽(1997)은 부사를 허사로 분류하고, 명사, 형용사가 부사로 기능하는 예는 품사 활용에서 다루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문법서의 품사 활용은 실사에 속하는 품사 사이의 전환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둘째, 품사 활용의 항목이 상이하다. 예로, 명사가 부사로 기능하는 것을 품사활용으로 보는가의 여부이다. 현대 중국어는 시간명사만이 부사어로 기능하지만, 고대 중국어는 보통명사도 종종 부사어로도 사용된다. 왕력(1962)은 이를 품사활용의 하나로 간주하였고, 국내 대학한문 교재, 2015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보통명사의 부사로서의 활용을 품사 활용의 한 가지로 다루었다.<sup>23)</sup>

23) 김성중, <한문교과 학습 요소로서의 ‘품사의 활용’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91권0호, 2022.

한편, 명사가 부사로 기능하는 예를 품사활용으로 보지 않는 문법서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태길(2001)은 명사가 부사로 기능하는 것은 부사로의 품사 전환이 아닌 부사어, 상황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고대 중국어 명사의 고유한 상규적인 기능이라 설명하였다. 즉, 품사의 성질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광석량 외(1964) 역시 현대중국어는 시간명사만 부사어로 활용 가능하지만, 고대중국어는 기타 방위나 장소, 도구나 근거, 사람에 대한 태도, 비유를 나타내는 경우 명사가 부사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품사의 활용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sup>24)</sup> 두 문법서는 모두 명사가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를 품사활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형용사가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는 품사의 활용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명사가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은 품사 활용이 아니지만, 문법서의 구성과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품사활용 장에서 논의한다고 밝힌 점도 같다.

플리블랭크(1955) 역시 명사가 부사로 기능하는 것을 활용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통사적으로 보어구의 변형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비유를 나타내는 명사 부사어는 ‘如’, ‘若’이 이끄는 보어구, ‘以’가 이끄는 도구, 수단을 나타내는 개사구, 혹은 장소를 나타내는 보어구의 변형에서 도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형용사의 부사적 기능은 형용사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에 반해 명사의 부사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드물고 부사적 기능을 하는 명사는 개사로 본동사와 연결되는 구조의 변형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동사가 부사로 기능하는 예는 연속동사의 구조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연속동사의 의미 관계가 다양한데 그 가운데 앞의 동사의 행위가 마지막 동사의 행위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거나 혹은 동사의 연결 구조에서 앞 동사가 마지막 동사를 묘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연결동사가 단일 동작의 구성요소나 결과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사와 유사한 함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sup>25)</sup> 명

24) 광석량·당작번·하구영·장소우·전서연 편저, 김혜영·문수정·신원철·안소민·이강재 역, 《고대중국어: 한문 학습의 길잡이》, 역락, 2016, 81쪽.

사, 형용사, 동사가 부사로 기능하는 경우를 각각의 의미, 통사적 특징과 통사적 변화에 근거하여 다르게 분석하였다.

둘째, 명사화를 활용으로 보는가이다. 왕력(1962)을 포함하여 안병국(1999), 최태길, 정옥순(2005)는 명사화를 품사 활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쥘평(2004) 역시 ‘검류’ ‘전칭’, ‘활용’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동사의 명사화를 ‘검류’로 분석하였다.<sup>25)</sup> 예로, “芮曰, “幣重而言甘, 誘我也.(《좌전(左傳)·희공(僖公)10년》) (극)예가 말하였다. 예물이 많고 말이 달콤하니, (이는)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에서 ‘言’은 동사이지만 해당 문장에서 명사로 사용되었으며 ‘言’이 명사, 동사 기능하는 경우, 의미상 연관성이 있고, 단어의 의미가 비교적 확정적이므로 검류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전칭과 검류의 차이는 단어의 의미에 있으며, 검류에 속하는 경우, 단어의 의미가 비교적 확정적인 반면, 전칭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개 전칭 기능을 갖춘 것은 형용사이고, 동사의 명사화는 검류로, 검류는 명사와 동사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밝혔다.<sup>27)</sup> 같은 명사화이지만 본래의 품사에 따라 각각 전칭, 검류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플리블랭크(1955)는 동사의 명사화를 동사가 파생 명사를 만든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모든 동사가 파생 명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동사가 파생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sup>28)</sup>

한편, 동사화는 모든 문법서에서 다루었으며 품사 활용론에서 중요한

25) 플리블랭크(1955)는 고대 중국어의 품사 활용을 각 어휘의 의미나 통사 구조의 변화 안에서 분석하였다. 품사 활용론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3>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한 글자가 여러 품사로 기능하는 현상에 대한 그의 연구는 향후 품사 활용 연구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플리블랭크 저, 양세욱 역,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궁리출판, 2005, 114, 235쪽 참조.

26) 리쥘평 저, 신원철·김혜영·이강재 역, 《고대중국어 어법론》, 역락, 2018, 93-94쪽 참조.

27) 리쥘평 저, 신원철·김혜영·이강재 역, 《고대중국어 어법론》, 역락, 2018, 93쪽 참조.

28) 플리블랭크 저, 양세욱 역,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궁리출판, 2005, 155쪽 참조.

요소이다. 왕력(1962)은 명사가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보편적이라고 소개하며 품사활용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플리블랭크는 일부 명사의 동사화는 통사적 품사 활용이 아닌, 한 글자의 의미 변화로, 독립된 어휘 항목으로 동사적 의미를 획득한 것이라 분석하였다. 예로 ‘禮’, ‘城’, ‘軍’이 ‘예절 → 예를 갖추다’, ‘성 → 성을 쌓다’, ‘군대 → 주둔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는 어휘의 의미 변화로 품사활용이 아니라고 밝혔다.<sup>29)</sup> 양백준(1963) 역시 동사와 명사 사이의 품사 전환을 단어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변화의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동사 안에서 기타 동사 종류로 사용되는 예를 품사활용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마씨문통》, 《국문법초창》에서도 타동사로의 활용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왕력(1962)은 사동, 의동 용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후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도 이를 품사 활용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는 상이한 통사적 환경에 동사가 출현한 것으로 기타 품사 활용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광석량 외(1964)는 명사가 일반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보편적이지만, 명사가 사동, 의동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양자를 동일한 층위의 품사 활용으로 치부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sup>30)</sup>

최태길, 정옥순(2005)는 자동사의 사동용법은 활용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즉 상고중국어 자료에 근거하면 자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 대다수가 사동사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는 고대 중국어 자동사의 기본용법으로 활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대중국어는 겹어문이 비교적 적게 출현하고 동목구조의 사동용법이 많으므로, 현대 중국어 겹어문의 출현과 사동용법의 연관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sup>31)</sup>

29) 플리블랭크 저, 양세욱 역.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궁리출판, 2005, 73쪽 참조.

30) 광석량·당작번·하구영·장소우·전서연 편저, 김혜영·문수정·신원철·안소민·이강재 역, 《고대중국어: 한문 학습의 길잡이》, 역락, 2016, 79쪽.

31) 위의 책, 70-71쪽 참조.

각 문법서의 품사 항목의 차이는 품사 활용의 판단 기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품사 항목의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품사활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품사 활용은 본래 어떤 하나의 품사에 속하던 단어가 문장 내에서 임시적으로 다른 품사로 활용되는 것을 일컬으며 임시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검류, 통용(通用)과 구분된다.<sup>32)</sup> 검류는 하나의 단어가 두 종류 이상의 다른 품사 기능을 가지며 그 의미가 서로 관계가 있고, 각 품사의 단어가 모두 비교적 확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고대중국어는 단어의 품사 활용뿐만 아니라 검류, 통용도 보편적으로,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sup>33)</sup>

품사 활용은 본용, 활용이 구분 가능하고 본래의 품사가 정해져 있고, 활용의 경우, 의미가 확정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용, 즉 본래의 품사를 찾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고명개(高明開)는 중국어 실사는 다양한 품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언어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품사로 기능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주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단어의 본용을 인식하였다. 왕력도 단어는 주요 품사 기능에 해당하는 본성과 기타 품사 기능인 변성을 가지며, 다만 본성과 변성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sup>34)</sup> 문법서 안에서 같은 글자의 본래 품사, 즉 본용을 다르게 상정하고 활용을 분석하기도 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 朝而往, 暮以歸. 아침에 가고 저녁에 돌아온다.

(12) 序八州而朝同列. 팔주를 통할하고 동등한 대열로 하여금 내조하게 했다.

요진우(1979)는 (11)에서 ‘朝’의 본용은 시간명사로, 부사어로의 활용으

32) 리쥘평 저, 신원철·김혜영·이강재 역, 《고대중국어 어법론》, 역락, 2018, 7쪽 참조.

33) 광석량·당작번·하구영·장소우·전서연 편저, 김혜영·문수정·신원철·안소민·이강재 역, 《고대중국어: 한문 학습의 길잡이》, 역락, 2016, 90쪽.

34) 高名凱, 《語法理論》, 商務印書館, 1960, 154-161쪽.

로 분석하고,<sup>35)</sup> (12)는 타동사에서 사역동사로의 활용으로 간주하였다. ‘朝’의 본용이 명사, 동사로 상이하다.<sup>36)</sup> 이처럼 본용으로서의 품사가 두 가지로 제시된다면, 학습자의 혼란을 야기하기 쉽다.

둘째, 임의성의 판단 기준이 없다. 리쥘핑은 검류와 활용을 구분하기 위하여 활용은 어떠한 품사의 고유한 용법이 아니고 단지 우연히 나타나는 용법으로 횡수가 적고, 상용 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용법의 횡수, 상용 용법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로, 리쥘핑(2004)은 가장 보편적인 품사 활용은 명사가 동사로 활용되는 것이라 하였지만,<sup>37)</sup> 플리블랭크는 이는 품사 활용이 아닌 해당 어휘의 상용 용법으로 간주하였다. 즉, 어휘의 의미는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단어 의미의 인신, 파생으로 임의적으로 사용되던 의미 항목이 한 글자의 새로운 의미항목이 되어 어느 시점에 서는 상용 용법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고대 중국어에 품사론을 적용한 이후, 고대 중국어 문법서는 품사 활용을 설명, 분석하는 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고, 품사 활용론 정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다. 하지만 품사 활용론은 범위 설정, 항목 체계화, 판단 기준 구체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IV. 결론

고대 중국어의 품사 활용은 고대 중국어 문법의 특징이며 한편으로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중국어에 품사 체계를 처음 적용한 《마씨문통》에서

35) 요진우 편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52쪽.

36) 위의 책, 60쪽.

37) 리쥘핑 저, 신원철·김혜영·이강재 역, 《고대중국어 어법론》, 역락, 2018, 95쪽.

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문법초창》을 비롯한 고대 중국어 문법서는 이를 기반으로 품사 활용론을 정립하였다. 하지만 품사 활용론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고대 중국어의 품사 활용은 현대 중국어에 비해 보편적이다. 따라서 품사 활용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한자는 어떠한 품사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과 함께 고대 중국어에 품사 체계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본인은 품사 활용론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고대 중국어 학습과 교육, 그리고 고대 중국어 문헌 독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품사 활용론을 통하여 고대 중국어 품사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품사 활용론의 정립 과정에 대한 이해와 현 문제점 인식에 근거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품사 활용론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문법초창》에서 실사에 속하는 품사 간의 활용으로 그 범위를 정한 이후, 대개의 문법서는 그 범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사에 속하는 품사 부류 안에서의 활용을 다루었다. 하지만 일부 실사의 허사적 용법 역시 활용으로 간주하기도 하며, 부사로의 활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사의 허사, 실사로의 귀속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둘째, 각 문법서의 품사 활용 항목을 정리해야 한다. 각 문법서에서 제시하는 예시를 중심으로, 활용이 가능한 글자 항목을 구성하고, 각 글자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을 한어사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품사활용은 고대 중국어 문법의 특수성으로, 현대 중국어에도 품사활용이 있지만 고대중국어만큼 많지 않고 상고시기 중국어에서만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 입각하여 활용이 가능했던 어휘를 중심으로 그 의미, 통사적 특징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한다면 품사활용이 가능한 어휘의 특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 통사 변화와 함께 품사 활용의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플리블랭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고대 중국어 자동사의 사동 용법과 겸어문의 출현, 부사로의 품사 활용과 개사구조의 발전, 형용사의

사동용법과 보어구의 출현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따라서 품사 활용과 통사적 구조 변화의 유기적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논문은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 고대 중국어 품사 활용론의 정립 과정을 고찰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밝히는 것에 그쳤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두겠다.

### < 참고문헌 >

- 곽석량·당작번·하구영·장소우·전서연 편저, 김혜영·문수정·신원철·안소민·이강재 역, 《고대중국어:한문 학습의 길잡이》, 역락, 2016.
- 리쥘평·신원철·김혜영·이강재 역, 《고대중국어 어법론》, 역락, 2018.
- 메이광·박정구·백은희·조은정 역, 《고대중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2020.
- 안기섭, 《신체계 한문법대요-선진 양한 시기》, 보고서, 2012.
- 안병국, 《고대한어 어법의 기초》,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9.
- 요진우 편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 장소우 저, 최재영·임미나 역, 《근대중국어 연구방법론1》, PB PRESS(피비 프레스), 2019.
- 장사오위 저, 이강재 역, 《고대중국어어휘의미론》, 차이나하우스, 2012.
- 최태길, 《고대한어총론》, 신성, 2001.
- 최태길·정옥순, 《고대한어》, 북스힐, 2005.
- 플리블랭크 저, 양세욱 역,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궁리출판, 2005.
- 허벽, 《중국고대어법》, 신아사, 1997.
- 김성중, 〈한문교과 학습 요소로서의 '품사의 활용'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91권0호, 2022.
- 김성중, 〈한국 한문문법서의 성과와 향후 과제〉, 《동방한문학》, 74권0호,

2018.

陳承澤, 《國文法草創》, 商務印書館, 1922, 1982.

高名凱, 《語法理論》, 商務印書館, 1960.

呂淑湘, 王海棻, 《馬氏文通讀本》, 上海教育出版社, 2000.

宋紹年, 《〈馬氏文通〉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4.

馬建忠, 《馬氏文通》, 商務印書館, 1898.

王力, 《古代漢語》, 中華書局有限公司, 1962, 2003.

楊伯峻, 《文言文法》, 中華書局, 1963.

張文國, 《古漢語的名動詞類轉變及其發展》, 中華書局, 2005.

Linlin Sun, Flexibility in the Parts of Speech System of Classical Chinese,  
De Gruyter Mouton, 2020.

Luká Zádřapa, Word-Class Flexibility in Classical Chinese verbal and  
adverbial uses of nouns. (Conceptual History and Chinese  
Linguistics), BRILL, 2011.

### <Abstract>

Classical Chinese is observed to feature word-class flexibility, in the sense that there are lexicon that can be used to serve the functions of two or more traditional word classes, without the functional change being marked by any derivational means. This is a peculiarity of ancient Chinese grammar, and also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difficulty of reading ancient Chinese texts. So after the first Chinese grammar book MaShiWenTong which was published, successive Chinese grammar books have tried to explain word-class flexibility and this is still in progress.

This paper examines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flexibility of the part of speech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research history and reveal the differences in setting scope, type of items, and criteria for the use of parts of speech in each grammar book.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theory of parts of speech and to solidify the system of parts of speech in ancient Chinese.

Key Words : 품사활용(Flexibility in the Parts of Speech System, Flexibility in word class), 마씨문통(MaShiWenTong), 문법초창(Guo WenFaCaoChuang), 고대 중국어(Classical Chinese), 고대 중국어 문법(Classical Chinese grammar), 중국어 품사(Chinese parts of speech).

